

일반논문

융합문화 시대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대학교양 교육의 중요성 :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교양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 민웅기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3-0637-1665>)

투고일: 2020.11.12. / 심사완료일: 2020.11.30. / 게재확정일: 2020.12.10.

요약

본 연구는 대학교양교육의 전통적인 교육목표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융합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나타난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학습이 요구된다. 사회과학지식에 토대를 둔 대학교양교육 체계는 현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가치를 함양시키며,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적 지혜와 시장적 지식으로 각각 대변되는 윤리와 기술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강좌의 교육목표 실행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컨대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 콘텐츠의 학습은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교양교육, 사회과학, 사회적 가치, 삶의 질, 융합문화

I. 서론

최근 융합적 성격의 사회문화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추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 지식콘텐츠의 종류와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 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지식의 전달 방식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대학 등

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습 공간의 확장은 지식콘텐츠 구성 자체의 변화는 물론 학습자의 삶의 양식을 바꾸기도 한다(이주연, 2019). 이제 사람들이 각자 생활하는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지식체계가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사회구성원들이 지식 습득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융합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소비자들의 특화된 취향과 요구에 의해 지식군들이 복잡하게 분화되거나 관련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Griswold, 1994).

지식체계의 변화는 거시적 사회질서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신자유주의 가치로 구체화된 시장경제체계가 현대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또한 복잡한 정보네트워크 체계는 사람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그러한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효율성과 생산성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주요 목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중심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순기능적 가치 외에 빈익빈부익부, 계층의 대물림, 불평등과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본질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은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재고(再考)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푸트남(Putnam, 1993)이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과 구조적 신뢰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되는 신뢰 관계는 결국 협력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효과적인 삶의 운영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협력적인 시민의 공동체적 연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 공동체적 연대는 효율성과 형평성, 개인과 집단, 사회구조와 행위, 공공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함께 충족될 수 있는 융합적 사회질서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상술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사회과학지식은 교육 콘텐츠의 실생활로의 적용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과학지식의 이론적 맥락이 현대사회의 질서를 만나 연계되고 응용되어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성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본격적인 시장구조에 진입하기 위한 직전 단계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경험하게 되는 대학교육 과정에서 교양지식교육 역시 이 같은 사람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지식의 학습을 통한 대학교양교육체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이 시대의 융합문화적 삶을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의 비정형적 사회질서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점차 정교화 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대학교양교육 콘텐츠와 교수법 역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문화시대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회과학지식 학습을 통한 대학교양교육의 역할과 위상,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과학지식 학습을 통한 교양교육체계는 정교하게 변화하고 있다. 융합시대에 인간의 사회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욱 다양해진 학습콘텐츠들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삶이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통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적 입장에 대한 해석 과정을 학습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포스트모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질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게끔 기능하는 사회과학지식 기반 대학교양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융합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과학기반 대학교양교육

소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나타난 네트워크형 사회구조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계의 확산 과정은 신자유주의 물결을 가속화했으며, 삶의 가치를 물질 중심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인간 삶의 경계를 관통하는 경쟁과 생산과정의 재정비 현상은 노동력 투입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도 했으며, 더 빠른 삶의 속도를 강요하는 구조적 사회문화를 강화시켰다(김

문조, 2003; Gough, 1990). 사람들은 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흔히 말하는 유연성이란 인간이 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시간, 비용 등의 관련 자원을 활용하고 실행할 때, 적은 비용이나 대가로 사회변화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enner, 2002). 이 유연성의 증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자본축적 과정의 불평등성이 매개된 여러 가지 파생적 사회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융합적 사회문제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민감한 반응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지식컨텐츠의 본원적 가치를 나타내게 해준다(민웅기, 2017).

예를 들어 상술한 사회문제는 시장환경에서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수 있다. 정보혁명, 융합혁명으로 명명되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시장, 국가의 가치가 상호 작용하면서 충돌하기도 한다. 이 같은 관계성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연결망을 근간으로 결국 경쟁과 호혜적 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초연결사회의 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Callon, 1997; Castells, 1996; Latour, 1986; Putnam, 1993).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영역에서는 역시 발 빠르게 관련 연구 성과물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전통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망은 물론 인간과 비인간(사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에게도 그 행위의 본질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비인간 간 네트워크의 결합, 재결합, 해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체계를 통해 효용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함께 사고하는 포스트모던적 상호작용의 특징에 대한 논의는 최근 사회과학지식의 주요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다. 인간 간 실질적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인간과 사물이 연계되고, 개인 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 경쟁 및 호혜적 관계를 가리켜 소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설명하는 연구과정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지식범주라고 할 수 있다(Callon, 1997; Latour, 1986). 결국 전술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내재된 최근의 지식체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 동향이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이성적 에토스(ethos)의 흐름과 함께 비합리적이며 감성적 성찰성이 합쳐진 새로운 지식체계의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민웅기·한승훈, 2016).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사회과학지식의 학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과학지식을 전수하는 주체와 객체 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사실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시장적 지식'과 함께 가치에 근거를 둔 심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적 지혜' 영역을 융합한 지식콘텐츠 학습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 교육체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편재된 지식범주를 벗어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혼용 문화에 대한 내면적 가치를 인간들이 공유하고 함께 소비하는 지식 내 의미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지식은 다양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지식 소비자들은 지식을 내재화하는 자율적·성찰적 주체로서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의 체화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사회과학 지식에 기반을 둔 교양강좌 역시 기존의 이론 지식과 함께 실제적 사회적용 지식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교양교육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각 학문 하위 영역의 지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편재(遍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식콘텐츠는 다시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인간 각각의 생애주기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그중에서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거시적 사회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전달 체계로서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대학교육에서는 시장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도구적·수단적 지식체계의 전달이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노동 시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기능적 지식범주 학습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직무 중심 지식 교육의 학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실존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윤리적 측면의 교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적 사회 가치를 함양시키는 교육 시스템의 원리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은 윤리교육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정립은 인간 삶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적 교육 시스템이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육을 위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활발한 공론 과정 및 안정적 의사소통 체계는 지식의 책임과 수렴 과정의 정교화 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산업사회의 특징인 효율성 중심의 생산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고자 하는 인식과정과 포스트 모던적 생활 교육의 새로운 도전적 기획은 인간의 생활을 둘러싼 시공간 내 존재하는 상징과 기호의 재생산을 가져왔다. 더불어 인간은 새로운 융합적 의미의 축적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도구적 지식체계의 수렴을 통해 객체적 내재화를 묵묵히 진행해 온 인간의 반성 과정이 주체적인 기획을 통해 새로운 이질적 의미형성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지식의 경우, 경험과 사유에 의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지식 체계로 폭넓게 구성된다. 인간 활동영역에서 산출되는 소위 사회과학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그것의 유용성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과학지식의 과학적 타당성은 인간의 사회활동을 통한 경험적 타당성의 확보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자들 대부분이 그들의 연구 활동에서 경험적으로 타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따라야 할 과학적 규범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관심을 반영하면서 지식 콘텐츠를 창조해낸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방법들을 사회과학적 지식 산출과정에서 적용하느냐는 항상 학자들의 공론화된 쟁점으로 남게 된다(정창수, 1996).

결국 최근의 사회과학 학문 영역의 학습은 전통적인 이론적 패러다임(paradigm)에 근거를 둔 지식콘텐츠 전달과 새로운 융합적 패러다임의 전달과정이 함께 혼용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은 어떤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동시에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사회 규범이 준수되고 있느냐를 고민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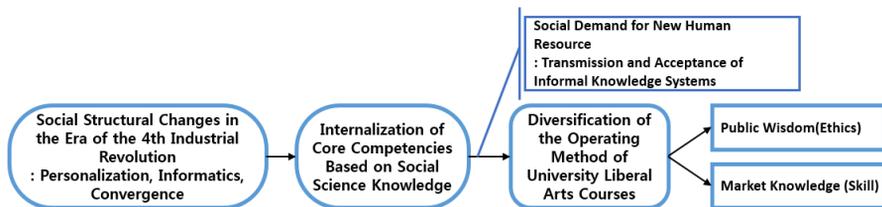
특히 대학교양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학지식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 형성 과정의 본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가 의미 있는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되는지,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개인들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선입견, 배경적 지식, 지식콘텐츠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스스로 구성하게 된다. 그 의미 구성의 틀 속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과학의 이론적 틀과 진리관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지식 인식의 방향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정창수, 1996).

사회과학적 지식 연구의 발전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관찰, 실험, 문헌연구를 통해 형성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그 지식수준에 상응(相應)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지식을 학습하는 다양한 교육체계는 그러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식 주체에 의해 어떤 의미 있는 대상으로 해석되거나 구성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립된다(정창수, 1996). 인간이 포함된 조직·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보편적 지식체계로서의 사회과학 학문 영역의 학습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화된 사회문화에 대응하여 인간 개인의 실존 가치와 공공성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는 것이다.

이제 인간 개인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네트워크 사회의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Coleman, 1990). 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학문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더욱 복잡한 연계구조를 형성했다. 즉 수많은 지식 노드(node) 간 연결을 통한 복합적 지식이 구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에서 사람들은 거시적 사회문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의 기능과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대학교육 역시 이에 상응하는 창의적인 인적 구성원을 배출해야 하는 주요 역할을 추구하게 되었다. 개인화, 정보화, 융합화로 이어지는 최근의 사회구조적 변화는 복잡하면서도 빠른 거시적 측면에서의 인간과 환경의 시대적 트렌드를 변화시켰다(민웅기, 2013).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핵심적인 역량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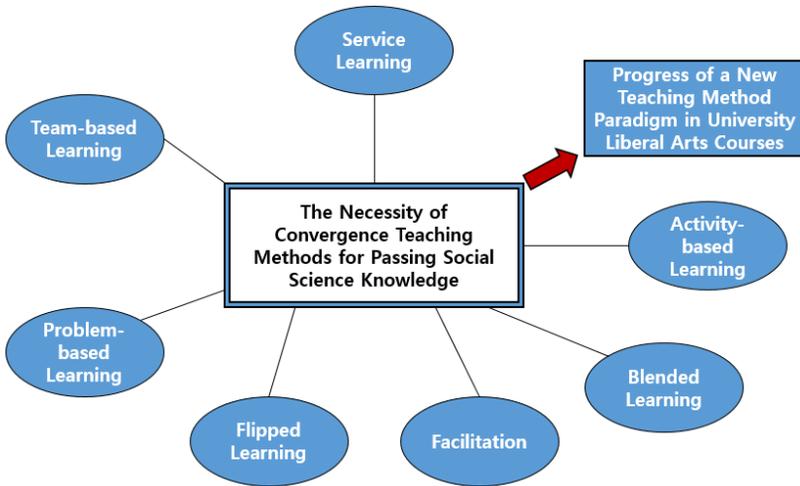
특히 현재 국내 각 대학들은 개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이성적·감성적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지식콘텐츠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대학은 비판적·분석적·융합적 사고를 토대로 교육되는 사회과학지식 기반 핵심역량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정형화된 지식콘텐츠와 함께 포스트모던 사회의 비정형적 지식체계를 함께 교육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시장적 지식에 근거를 둔 기술 교육과 공공적 지혜 함양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교육의 융합적 전달을 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재의 거시적 사회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 지식체계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ocial Structural Change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Orientation of the Knowledge System for University Education Based on Social Science Knowledge

한편,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사회구성원들 간 상호의존적 공생관계를 회복하고, 그러한 사회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필요성 역시 제시되고 있다. 이 공공적 가치는 복지 및 문화정책으로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 국내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진행된 교육정책은 국가중심적 발전전략과 함께 실용적 가치의 전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각 국가에서 새롭게 구현하고 있는 공공적 가치 확대라는 정책적 지향점은 교육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론적 대립 상황을 기능론적 교환관계로 선순환 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 산업사회에서 추구한 강화된 잉여자본의 축적 논리는 과거 자연에 대한 인간 착취를 일부 정당화 시켰지만(조명래, 2002), 최근 에 와서는 그 축적의 질서와 함께 사회구성원들 간 자원을 공유하고 분배하는 공생의 가치에 대한 사회화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은 인간 개개인의 생존 목적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정책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구성과 운영 원리에 사회과학은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각 대학은 상술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대학 내 교양교육시스템에서 구현하고 있다.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전달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적 교수법을 통해 공공적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양교육체계에서 기존의 정형적인 교수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수법 활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수되는 지식의 범주 역시 실용적·윤리적 가치를 함께 포함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 과정에서도 〈Figure 2〉와 같은 다양한 교양교육 교수법들의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Figure 2〉 Various Categories of Convergence Teaching Methods for the Transmission of Social Science Knowledge in University Department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urce: 민웅기·서정일·안후남(2020)을 수정·재구성함

특히 이론적, 실용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폭넓은 지식콘텐츠의 스펙트럼이 내재된 사회과학 기반 교양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전달 과정과 방법을 향한 교육자의 숙고(熟考) 과정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효과적인 지식전달을 위해서 창의적인 대학교양지식 콘텐츠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대학교양 강좌 운영 중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자료 수집 및 교수법의 실행은 효과적인 지식 전달과정을 위해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사회과학지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학교양 강좌 운영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을 겪으면서 인간이 비대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매체를 선용(善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들과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 융합문화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거시적 사회변화 속에서 교육자는 사회과학지식을 탐구하는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학습지도 패턴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전달 방법의 형식과 내용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사회과학지식 학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인간의 적응력은 중요해졌다. 융합문화를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질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간은 사회구조적 조건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사고의 표상들이 모여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인간은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 개인의 사유와 판단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떤 갈등 상황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그만큼 중요해진다(Rawls, 1982).

일찍이 정의(正義)는 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증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정의는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협력가로서의 인간의 조정능력은 그 중요한 전제가 된다. 대체로 정의를 담보하거나 최소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매우 복잡한 사고 과정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재분배를 통해 공동 노력의 조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회의 제도는 정의로운 상황을 확립할 수 있게끔 운영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는 동등성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가치 정립 과정에서 이루어진다(Holzleithner, 2014).

오늘날 사회과학지식은 상술한 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의 습득 과정을 돕는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체계는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가치 속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외면해왔다. 평등함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에서 중요한 실천적 생활윤리의 결과로 구현되는 사회적 질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산업사회의 질서에 반대되는 대안적 삶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규정하면서도 자본축적의 편리함에 대한 정당성은 사회 내의 주류 문화로 항상 뚜렷하게 유지되어왔다.

이제 본격적인 노동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대학 내 교양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에 입각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 교육의 또 다른 기능적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산업사회 이후에 지속된 생산성 중심의 경제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융합기술 능력의 확장을 통한 기술 과잉의 시대에 인간이 편입됨으로써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실존적 삶의 가치문제, 인간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과잉 노동에 의한 인간의 직무 소진 현상, 노동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생활권의 박탈, 도시공간의 과잉집적현상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교육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돕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구성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상술한 맥락에서 공공성에 기초를 둔 공동체주의의 가치 함양을 위한 사회과학지식 교육은 대학교양교육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성별, 학년, 계열, 전공 등에 상관 없이 함께 학습하게 되는 교양교육콘텐츠 전달과정에서 사회과학지식의 학습은 산업화 이후 새롭게 이어져 온 개인화 현상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화 현상이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정의 실현에 적대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공동체 구조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개인이며, 그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모두 아우르는 소속감이자 공동의 가치, 신념, 관념과 관련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교육의 전달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과 기준을 피교육자가 인정할 수 있는 문화로 인식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지식콘텐츠의 분배가 정의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식이 공정하게 교환될 수 있는 인식론적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은 불평등을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 사회과학 기반 교양교육콘텐츠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제 복잡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교육과정 중에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인 비판적 사고가 타자나 외집단에 대한 대립 관계의 무조건적인 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국가 공동체에 편입된 존재이고, 그 핵심 가치는 소속감이며, 국가에 대한 애착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집된 역량을 펼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공동체주의의 내재화를 통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인간 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의 관념에서 생겨난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Holzleithner, 2014). 이제 사회과학지식 기반 대학교양교과 학습을 통해 정립되는 공

동체를 위한 정의의 실천 원리는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회적 선(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왔다. 불평등과 차별의 질서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계속 존재해왔다. 성, 인종, 종교, 계급, 장애 여부 등 개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더 복합적 성격으로 외현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간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윤리적 삶의 실천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는 사회과학 지식의 학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체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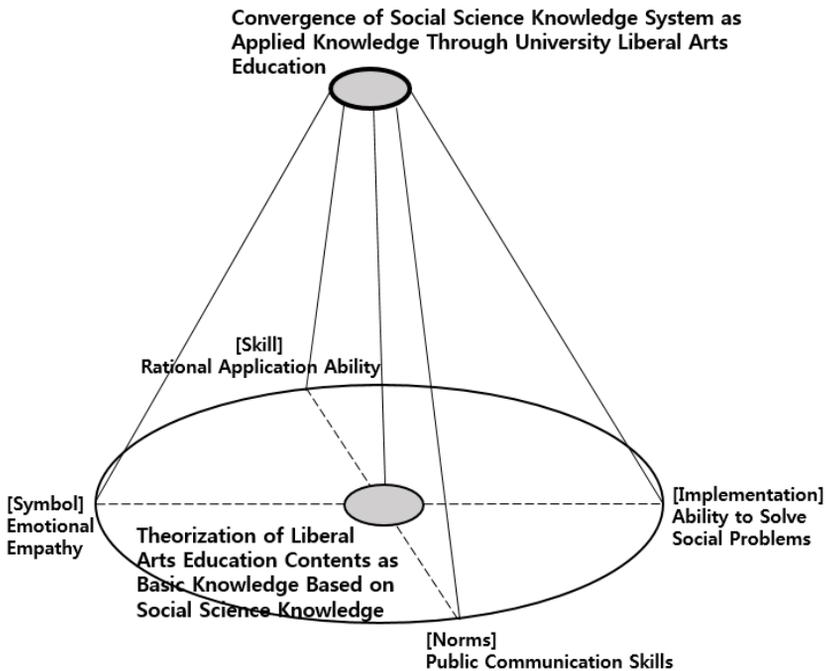
이처럼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을 통해 융합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은 사회구성원 간 갈등 관계를 완화하고, 합의와 협상의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적 상호작용을 위한 인성교육이나 문화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학습자는 지식 습득 과정을 통해 시·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사회질서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Thompson, 1990).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 그리고 실천적 기제로서의 윤리적 가치의 정립을 위해 더욱 전문화된 교양교육 체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V. 사회적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과학 교양지식의 방향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체계로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대학교양교육 콘텐츠는 사회와 그 구성원인 한 개인의 상호존적 삶에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위험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학교양교육은 사람들의 불안과 위험을 집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체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Beck, 2006; Gough, 1990).

특히 최근에 와서는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 관련 학술 연구와 새로운 교육

과정이 다양한 체험형 지식체계의 유입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회과학 교양지식체계의 지향점은 비대면적 관계에서 비롯된 외면 받는 인본주의적 가치의 성찰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미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 하락과 공동체 의식의 쇠퇴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성찰적 삶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이 구조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양교육 체계를 통해 사회과학지식이 이론적 논의에서 실제적인 응용지식으로 융합되는 현상을 모형화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 The Oriented Values and Educational Goals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s Basic Knowledge and Applied Knowledge Based on Social Science

*Source: 민웅기(2019)의 내용을 수정·재구성함

〈Figur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회과학 기반 교양지식체계는 기술, 규범, 상징, 실천의 범주로 나누어서 실현되고 있다. 이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콘텐츠의 체화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 자신과 함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공공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 책임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타인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감정적 공감을 시도함으로써 타인과의 협력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복잡다단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목표들은 사회과학지식 기반 기초지식으로서의 교양교육콘텐츠의 이론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상술한 사회과학적 개념들의 이론화 과정이 다시 융합되어 응용지식의 정체성을 지닌 사회과학 지식체계로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교양지식의 구체적인 활용성을 높여주고, 실제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대학교양교육 체계를 통해 사회과학지식이 이론적 논의에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지식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사회과학 본연의 가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 연구 과정에서 공공성에 입각한 보편적 윤리의식을 어떻게 각 행위자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의 결합은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옹호를 통해 시장과 국가의 억압에서 벗어난 공공적 인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전명수, 2018; Burawoy, 2004; Burawoy, 2005). 결국 공공성에 대한 책임은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과 그들의 실천적 문화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전명수, 2018).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찰의 결과는 제도와 담론에 근거한 정책으로 구조화되기도 한다(박보영, 2019).

공공성에 기초한 '자아-타자' 간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공존의 지식 구조화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안정적·기능적 교육체계의 역할 구현에 주요 동력을 제공해준다. 사회과학지식 기반 대학교양교육체계는 교양지

식의 메타학문적 인식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단선적 지식 패러다임의 순환고리를 넘어서 인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체화된 지식 범위로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지식생태계의 위상학적 재구성을 통해 메타지식 체계로서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다양한 학습 성과를 전파하여 전인격적 교육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민용기, 2019).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과학 기반 대학교양교육지식은 구체적이고 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공유된 사회적 가치의 효과적인 전달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징적인 해석과 이해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삶을 지배하는 해체와 융합의 의미체계는 독립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함께 상호작용하는 공공적 등가물로서의 문화로 인간 삶에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 삶의 기호들은 개인과 타자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 의미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학교양교육은 이 같은 사람들의 삶의 원천을 순환·회귀시켜주면서 학습 주체의 감응(感應)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학교양교육은 사람의 인성교육과 결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생활하기 위한 보편적 지식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양지식의 전달과정에서 기존의 병렬적 구성을 이룬 학습 형식은 그 교육 콘텐츠의 내용 구성 과정에서 사회적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줌으로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모두 배가(倍加)되고 있다. 특히 효율성 및 생산성 중심의 삶을 강요한 산업사회의 질서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체계는 사회구성원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문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융합문화시대에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사회과학지식은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끊임없이 재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기반 대학교양교육체계는 인간이 본격적인 시장구조에 진출하기 전에 여러 조직에 포함된 역할, 지위 부여 및 기능 수행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준다. 그 지식체계가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 전체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해주는 것이다. 광의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과정은 기존 사회질서 원리에 포함된 효율성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 형성 및 적응 현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번 구축된 집단 문화는 내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개별 특성을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특징으로 묶어 특정한 고등교육 체계의 지향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현재 사회과학지식의 학습을 통한 대학교양교육 체계는 대중적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 부여와 함께 시장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적자본으로서의 질적 변화를 유도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모더니즘적 사고에 입각한 조직 자본주의 체계의 문화는 최근 들어 탈근대성에 기반을 둔 비(非)물질적 생산 및 소비 체계와 결합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융합문화를 제시해주고 있다(민웅기·한승훈, 2016).

사회과학지식 학습을 통한 대학교양교육은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탈일상적 시·공간에서의 인간 삶의 특수한 범위와 문화를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자의 시·공간에서 외현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의 재구조화 과정을 이끌고 있다. 인간 삶의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탈경계적 지식체계의 네트워크 구조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지식기호의 제조과정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융합적 지식체계의 사회적 승인 과정은 급변하는 비정형적 사회질서에 적용하기 위한 대안적 대학교양교육 지식체계라는 새로운 구현물로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인간 개인과 타자의 의식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회과학지식의 본원적 가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학지식 학습을 통한 교양교육시스템은 인본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간 개인의 실존적 삶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회과학지식의 전달 역할을 하는 교육자와 그 지식을 수렴하는 학습자 모두에게 공감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사회과학지식의 학습을 통한 보편적 지식체계로서의 교양교육시스템은 나와 타인의 공유된 사회적 가치의 실천 역량을 강

화시켜 융합문화 시대의 교류과정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제 교육 및 학습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융합문화시대에 필요한 사회과학지식의 소명이며, 대학교양교육체계가 추구해야 할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현재 융합문화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비정형적 사회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공적 지혜와 시장적 지식이라는 윤리 및 기술의 두 가지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대학교양교육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대학 내 사회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보편적 사회과학 지식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지식체계의 학습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러한 연구를 앞으로도 꾸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들이 합쳐져 학습자의 다차원적이며 포괄적인 사고 체계의 승화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감 의식의 내재화를 통해 사회과학 기반 대학교양교육의 교육목표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조(2013).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Kim Mun-cho (2013). *The convergence civilization*. Nanam.]
- 민웅기(2013). 대학적응을 위한 신입생 선행 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차별화, 감성, 참여' 개념에 입각한 새내기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6), 275-304. [Min Woong-ki (2013). The case study of first year new student program for university freshmen: Focusing on the program of differentiation, emotional interac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t the age of postmodernis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6), 275-304.]
- 민웅기(2017). 사이버공간에서의 체험문화 교류를 위한 사회화 연구: 대학생의 '자기(self)'형성의 층위 범주 구분을 통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문화교류연구**, 6(4), 133-162. [Min Woong-ki (2017). The socializ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experience on cyberculture: A psychological analysis classifying the self formation process of college studen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6(4), 133-162.]
- 민웅기(2019). **교양교과 핵심역량 진단연구: 사회과학계열** 2019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계열별 핵심역량 진단연구개발 보고서. 목원대 대학교육혁신단. [Min Woong-ki (2019). *Diagnostic research on core competencies related to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social science track*, 2019 Mokwon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Colleges' Core Competency Diagnosis Report, Mokwon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Group.]
- 민웅기 · 서정일 · 안후남(2020). **핵심역량 교수법 연구 개발**. 목원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연구보고서. 목원대 대학교육혁신단. [Min Woong-ki, Seo Jung-il, & Ahn Hu-nam (2020).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for core competency*, 2019 Mokwon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Report, Mokwon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Group.]
- 민웅기 · 한승훈(2016). 도시관광에 내재된 탈근대적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28, 125-151. [Min Woong-ki & Han Seung-hoon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post-Modern values of city tourism from the humanities perspective. *Humanities Research*, 28, 125-151.]
- 박보영(2019).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 틀의 모색: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질연구**, 3(3), 95-129. [Park Bo-young (2019).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 new theory for the analysis of policymaking process of social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3(3), 95-129.]
- 이주연(2019). 사이버대학교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탐색. **사회적질연구**, 3(1), 61-78. [Lee Joo-yeon (2019). Exploring the learning experience of adult learners at cyber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3(1), 61-78.]
- 전명수(2018). **좋은 사회로 가는 길: 종교·시민사회·공공성** 집문당. [Chun Myung-soo (2018). *The road to a good Society: Religion, civil society, and publicity*. Jipmoondang.]
- 정창수(1996). **사회과학방법론**. 대영문화사. [Jeong Chang-soo (1996). *Social science methodology*. Daeyoung Publishing.]
- 조명래(2002).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6(2), 47-68. [Cho Myung-rae (2002). Greening state theorie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6(2), 47-68.]
- Beck, U.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 Benner, C. (2002). *Work in the new economy: Flexible labor markets in Silicon Valley*, Oxford: Wiley-Blackwell.
- Burawoy, M. (2004). Public sociologies: Contradictions, dilemmas, and possibilities, *Social Forces* 82, 1603-1618.
- Burawoy, M. (2005). 2004 ASA Presidential Address: For Public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4-28.
- Callon, M. (1997). *Actor-network theory: The market test* (draft). Actor Network and After Workshop, Centre for Social Theory and Technology (CSIT), Newcastle: Keele University.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Wiley Blackwell.
-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ugh, I.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s*, London: Macmillan.
- Griswold, W. (1994). *Cultures and societies in a changing world*,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Holzleithner, E. (2014). **정의**, 서정일 역. 이론과 실천.
- Latour, B. (1986). The powers of association.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pp. 264-28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Rawls, J. (1982). Social unity and primary goods. In A. Sen and B. Williams (Eds.), *Utilitarianism and beyond* (pp. 159-1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J. B. (1990).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민용기

현재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사회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문화, 사회심리, 교양교육, 관광'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체험문화 교류를 통한 사회화 연구', '대학 교양교육강좌 강의 및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이 있다.

E-mail: sunppk@mokwon.ac.kr

Abstract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Improve Social Values in the Era of Convergence Culture : Focusing on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Social Science Knowledge

Min, Woong-Ki

Assistant Professor, Div. of Creative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hat can help individuals cope with new social changes beyond traditional educational goals.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teaching social science knowledge that helps people realize social values in the era of convergence culture. University education is required for individuals to follow universal norms, especially in order for them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social structur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ystem based on social science knowled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real social problems, inculcating right values into university students, and internalizing the core competencies for humans. Realizing the educational goals of university liberal arts based on ethics and technology, such as the cultivation of public wisdom and market skills, can improve the life quality of society members. In short, teaching liberal arts at universities based on social science will help people realize social values.

Key Word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ocial science, Social values, Quality of life, Convergence culture